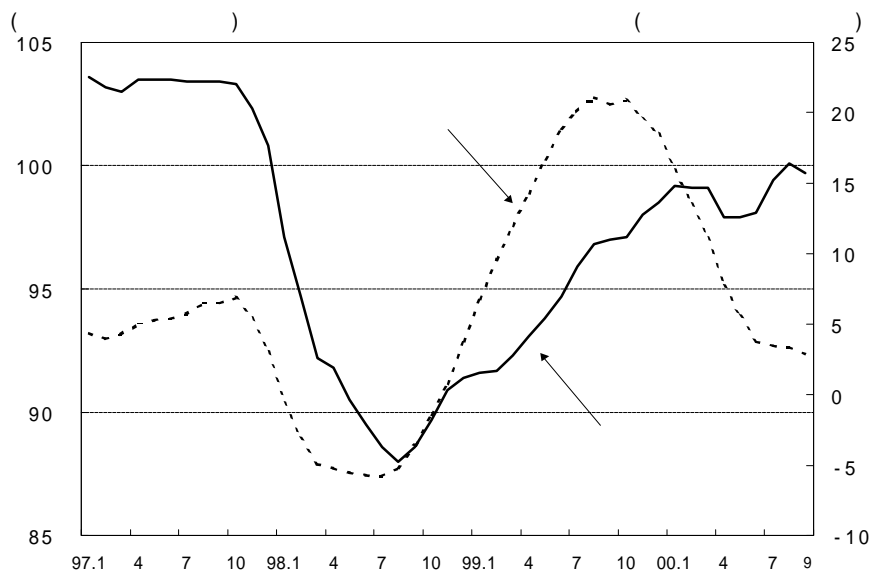


월간 경제 동향

산업 활동

- (내수 둔화세) 9월 중 생산, 설비투자, 소비 등의 실물지표의 상승 속도가 완만해 지고 있는 가운데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음
 - (생산) 반도체, 사무회계용기기의 증가율 둔화로 전년동월비 15.1% 증가하였고, 전월대비로는 4.3% 감소
 - (도소매 판매)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도소매 판매는 전년동월비 6.1%로 둔화되었으며, 소매업은 10.7%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
 - (투자) 설비투자는 정보통신 관련 부문의 투자는 42.9%로 연중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, 운수장비의 투자는 63.2%로 연간 83.5%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
- 3/4분기 이후 경기가 하강 국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
 -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에 비해 0.5% 포인트 감소하였고,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전년동월비는 작년 9월 이후 1년째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향후 경기 하강을 예고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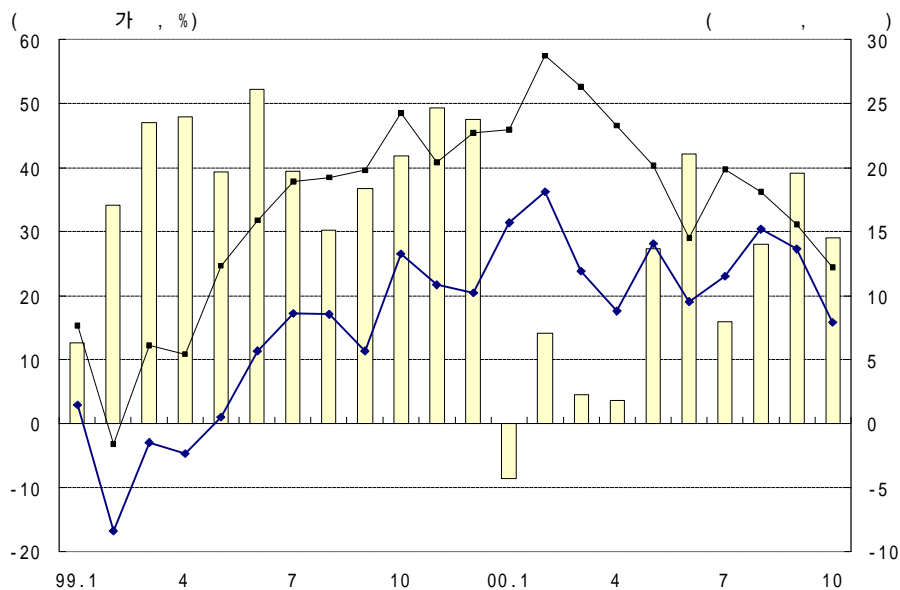
< 경기종합지수 추이 >



대외 거래

- (수출 호조) 10월 수출이 금액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였음
 - 10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5.8% 증가한 155.8억 달러를 기록하여 월간 규모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호조를 지속하였음
 - 품목별로는 반도체, 자동차, 컴퓨터 등이,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 호조를 이끌었음
- (수입 둔화) 수입은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 - 10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24.4% 증가한 141.3억 달러를 기록하였음
 - 수입이 7개월만에 14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나, 이는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른 것이며, 이를 제외할 경우 전반적인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
- 10월까지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97.6억 달러로 정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음
 - 4/4분기에도 수출 호조가 전망되므로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100억 달러는 물론 수정전 목표치였던 120억 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됨

<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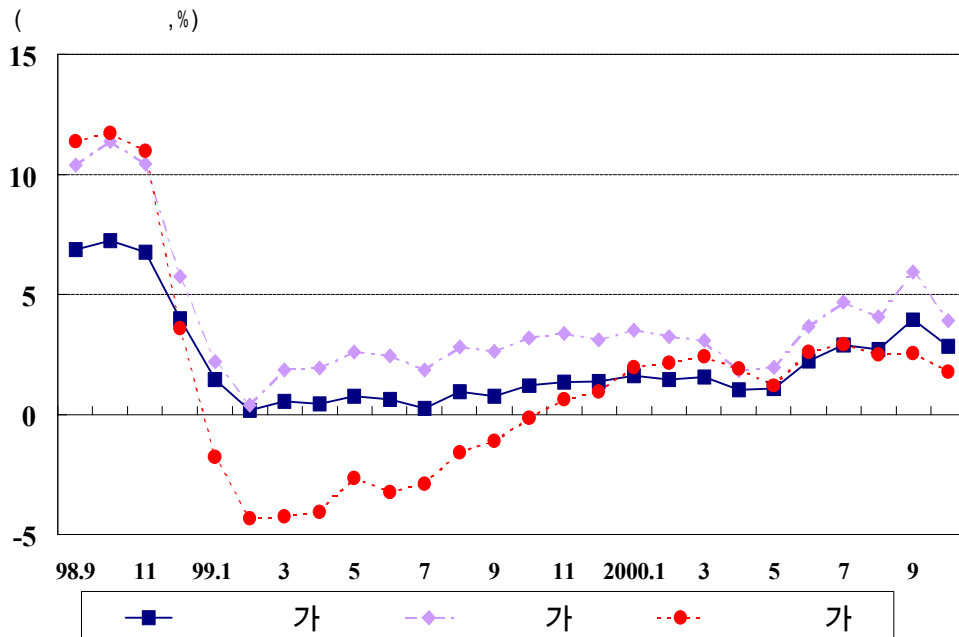


물가 동향

- (소비자물가) 10월 소비자물가는 9월 태풍의 영향으로 크게 올랐던 농산물 가격이 내려 전월 대비 0.3% 하락함 (전년 동월 대비로는 2.8% 상승)
 - 농축수산물 가격은 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4.2% 하락했으며 공업제품 가격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전월 대비 0.7% 상승함
 - 공공서비스요금의 경우 투약 및 주사료 등 의료서비스 가격, 도시가스요금 등이 인상되어 전월 대비 0.2% 상승했으며 집세도 전월 대비 0.1% 인상됨

- 올해 6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던 소비자물가는 10월 들어 큰 폭의 내림세를 나타냄으로써 하락세로 반전됨
 - 11월과 12월에도 高유가와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 등으로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나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물가 상승 억제 방침으로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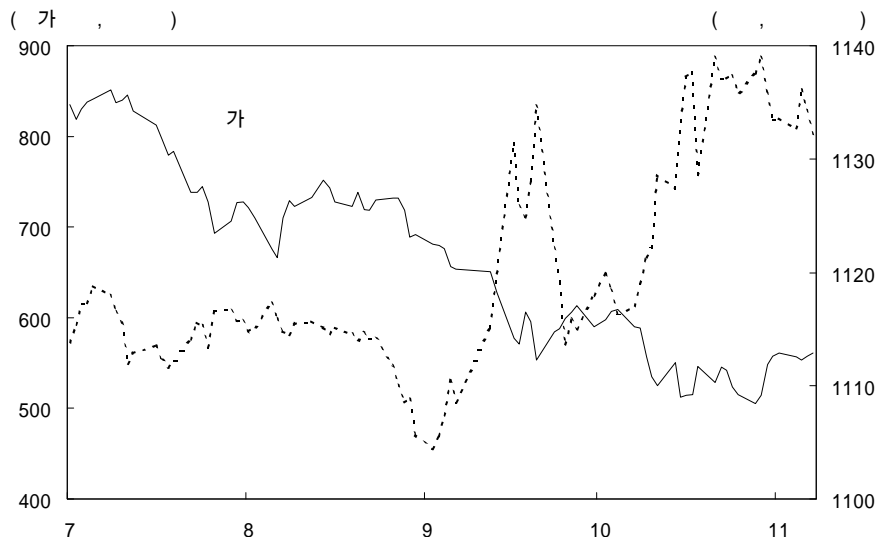
< 최근 물가 추이 >



금융 시장

- (원/달러 환율) 10월 중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환율은 11월 들어 다소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음
 - 금융 시장 불안 확산으로 10월 중순 이후 환율이 급등세를 보였으나, 2차 기업구조조정 이후 주식시장의 안정세에 따라 원화도 강세로 반전되었음
 -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1,130원 이하의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움
- (금리) 자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기대감으로 11월 들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
 - 대우차의 최종 부도 처리와 현대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만기 연장 합의로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냄
- (주가) 500선을 바닥으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
 - 동아건설 부도, 현대건설 자금난, 코스닥 시장의 주가 조작 사건 등 국내 돌발 악재로 종합주가지수는 장중 한때 500선이 무너질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음
 - 그러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신뢰함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는 560선까지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음

< 최근 원/달러 환율 및 종합주가지수 추이 >



(거시경제실)